

국립 대학 도서관 고서실의 발전 방향 연구

- 경상대학교 도서관 文泉閣을 중심으로 -

경상대학교 도서관
이정희

I. 서 론

대학 도서관에서 古書 · 古文書 등을 소장 · 관리하고 있는 자료실이 古書室¹⁾이다. 종합 대학 규모의 대학 도서관에는 고서를 소장한 고서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다. 고서실은 고서 보존과 운영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곳이다. 그러나 이용자가 적어 운영의 효율성 면에서 도서관뿐만 아니라 대학 구성원에게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원인을 찾고자 한다.

첫째, 도서관에서 稀貴性과 價值性에 중점을 두고 전국을 무대로 고서를 경쟁적으로 구입 · 기증 받아 장서 늘리기에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로 인해 각 지역 대학 도서관 고서실이 지역성과 위상을 명확히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둘째, 고서실에 소장되어 있는 고서는 내용이 대부분 난해한 漢字로 기록되어 있다. 이 때문에 고서는 한문을 해독할 수 있는 특정 소속 구성원이나 특정 학문을 전공하는 극소수 이용자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널리 자리잡게 되었다.

셋째, 고서실은 고서 보관 및 활용 방법 면에 있어서도 도난 및 분실 ·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비연관자에 대해 폐쇄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넷째, 고서실은 단지 고서를 보관 · 관리하는 곳에서 머물고, 진정한 의미의 주제자료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고서실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 중의 하나다.

대학 도서관 고서실이 이와 같이 폐쇄적이고 수동적인 운영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대학 내 이용자 및 지역민의 수요 욕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하지 못하고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면 대학 도서관 고서실을 지역과 밀착된 공간, 이용자의 욕구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

1) 대학마다 고서를 소장하고 있는 곳의 명칭이 다양하다. 본고에서는 고서를 소장하고 있는 곳을 편의상 '古書室'이라 명명하였다.

하는 진정한 의미의 주제자료실, 일반인도 공유할 수 있는 특성화된 자료실로 활성화시킬 운영 방안은 없는 것일까? 본고에서는 경상대학교 도서관 고서실인 文泉閣의 장기 발전 방안을 중심으로 국립 대학 도서관 고서실의 역할을 알아보고, 대학 구성원 및 지역민이 공유할 수 있는 고서실 운영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경상대학교 文泉閣 소개

1. 文泉閣의 연혁

文泉閣은 경상대학교 도서관 古書室의 명칭이다. 경상대학교 도서관에 고서를 처음으로 소장하게 된 것은 경상대학교 내에 본부를 두고 있는 배달말학회가 1986년 합천 해인사에 소장되어 있는 儒家文集 목판 100책 3질을 인쇄하여 그 중 1질을 본교 도서관에 기증함으로부터 비롯되었다.²⁾ 그러나 이 기증 도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古書라고 볼 수 없었고, 분량 면에서도 많지 않아 독립된 자료실로 존재할 수 없었다.

그 후 1989년 1월 진주삼현여고 崔文錫 교장으로부터 선친 我川 崔載浩선생이 소장했던 고서 3,683책을 기증 받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1989년 도서관 내에 비로소 漢籍資料室³⁾을 설치하였다. 다른 대학에 비해 고서실이 설치된 것은 상당히 늦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1991년에는 韓末 경남지역의 대유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인 倪宇 郭鍾錫(1846~1919) 선생의 문중으로부터 고서 2,325권을 기증 받았다.

그 이후에도 고서의 기증이 끊임없이 이어져, 1995년 6월 본교 법정대 학장을 역임한 駢里 李命吉 박사의 유족 이은행 여사로부터 319권의 고서를 기증 받았고, 같은 해 10월에는 前 진주고등학교 韓胄 교장으로부터 조부 愚山 韓愈(1868~1911) 선생이 관리하던 고서 1,232권과 고문서를 기증 받았다. 1996년 6월에는 진주지역 향토역사가인 梧林 金相朝씨로부터 고서 1,910권과 고문서를 기증 받았고, 같은 해 7월에는 산청군 단성면 교동에 世居해 온 愚川 權克有(1608~1674) 선생의 종손 權榮福씨로부터 고서 756권 및 고문서를 기증 받았다.

2) 배달말 학회가 합천 해인사에 소장되어 있는 유가문집 목판을 인쇄하여 기증하게 된 경위는 임지룡, 「해인사 소장 유가문집 목판을 배달말학회가 찍어낸 경위에 대하여」『배달말』(Vol.11 No.1, 1986)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3) 경상대학교 도서관에서는 고서실을 한적자료실이라 부른다. 그 이유는 고서만 소장한 것이 아니라 고서와 연계하여 고서 영인본과 한문으로 기록된 한적을 같이 소장·운영하기 때문에 한적자료실이라 명명하였다. 그 후 2001년 도서관 소장 한적을 남명학관 개관과 함께 분관으로 독립하면서 다시 文泉閣이라 명명하였다.

그리고 2002년 8월에는 재일 사업가 許榮中씨로부터 일본에 산재한 한국 근현대사 관련 도서 12만 5천 권을 기증 받았는데, 그 중 고서 1,737권과 한적 1,120여권을 이관 받아 정리 중에 있다. 현재 고서 14,689권과 고서 영인본 및 한적 20,534권 등 도합 35,276권을 소장·관리하고 있다. 이를 圖示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문천각 소장 고서 현황

문고명칭	기증자	분량(권)	기증일자	목록 발행	소장처
倍達文庫	배달말학회	100	1986.6.	-	합천 해인사
我川文庫	최문석	3,683	1989.1	아천문고목록	경남 진주
俛宇文庫	곽 태	2,325	1991.	-	경남 산청
驥里文庫	이은행	319	1995.6	기리문고목록	경남 진주
愚山文庫	한 주	1,232	1995.10	우산문고목록	경남 산청
梧林文庫	김상조	1,910	1996.6	오림문고 목록	경남 산청
愚川文庫	권영복	756	1996.7	우천문고 목록	경남 산청
春秋文庫	허영중	1,737	2002.8	정리 중	일본(한국)
그 외 기증		876		-	경남 진주인근
구 입		1,751		-	경남 진주인근
합 계		14,689		漢籍目錄(1996)	

1996년 12월에는 그 동안 기증 받은 고서 및 고서 영인본·한적 전체의 목록 정보를 KOMARC 형식에 맞추어 입력하여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경상대학교 고서 및 고서 영인본·한적 종합목록인 『漢籍目錄』을 발행하였다.

2001년 10월에는 조선 중기 진주지역을 대표하는 학자인 南冥 曹植(1501~1572) 선생의 사상과 정신을 연구·계승하기 위해 진주지역 독지가의 후원으로 대학 내에 南冥學館이 준공되었다. 이 건물 건립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대학에서는 남명학관 내에 남명학연구소·경남문화연구소·인문학연구소·사회과학연구소 등 인문 사회 계열 연구소를 입주시키고, 관련 교수 연구실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도서관에서도 남명학 및 지역학 연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1년 10월 23일 도서관 5층에 보관 중이던 고서 및 고서 영인본·한적 일체를 남명학관 2층으로 이관하여 문장이 샘처럼 솟아나는 집이란 의미의 ‘文泉閣’으로 명명하여 재개관하였다.



<그림 1> 문천각 고서실 전경

2. 文泉閣 소장 고서의 특성

문천각 소장 도서 현황을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2> 문천각 소장 도서 현황

(2004. 2. 16. 현재)

種類	分類	洋裝 影印本	古書線裝本												總計	
			寄贈文庫													
			購入	春秋	佩韻	我川	佛字	愚山	駢里	愚川	吾林	炳熹	나립	금산	奎光	
經部(A)	A1 總經類	383		1	2	42	0	0	0	0	0	0	0	0	0	6 434
	A2 易類	161		0	83	31	28	0	31	47	28	1	0	0	0	35 445
	A3 書類	12		0	82	14	13	0	25	32	24	0	2	4	0	34 242
	A4 詩類	2		0	100	0	32	8	36	55	19	0	0	10	0	40 302
	A5 禮類	44		0	105	78	33	14	21	60	9	0	0	3	0	27 394
	A6 樂類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A7 春秋類	1		0	118	25	0	0	4	33	10	10	0	1	0	23 225
	A8 孝經類	0		0	3	0	0	2	2	1	1	0	0	0	0	0 9
	A9 四書類	204		0	312	1	68	4	52	43	47	0	0	3	0	134 868
	A10 小學類	128		0	25	18	48	10	23	19	4	0	10	6	0	10 301
小計		935		1	830	209	222	38	194	290	142	11	12	27	0	309 3,220

種類	分類	洋裝 影印本	古書線裝本													總計 一般 購入		
			寄贈文庫															
			購入	春秋	冊	我川	佛字	愚山	顯里	愚川	吾林	炳熹	나ulp	금산	준용	春秋		
史部(B)	B1	總史類	153		0	0	0	0	0	0	0	0	0	2	0	0	155	
	B2	正史類	156		0	6	206	6	2	0	46	4	26	0	6		31	489
	B3	編年類	631		0	285	141	66	2	89	112	5	0	11	36		56	1,434
	B4	紀事本末類	3		0	0	9	2	1	1	0	0	0	1	1		6	24
	B5	別史類	166		0	0	9	15	0	0	0	0	0	0	1		3	194
	B6	雜史類	79		0	70	4	4	3	0	24	2	0	0	0		7	193
	B7	史表類	2		0	0	7	0	0	1	1	0	0	0	0		2	13
	B8	史評類	12		0	4	9	0	3	0	0	0	0	0	0		0	28
	B9	傳記類	122		5	250	99	32	20	44	161	14	0	0	7		78	832
	B10	系譜類	104		0	27	1	10	2	38	55	0	0	0	0		212	449
	B11	詔令·奏議類	30		0	6	2	0	0	0	3	1	0	0	1		0	43
	B12	職官類	3		0	0	0	1	0	0	1	0	0	0	0		0	5
	B13	政書類	493		0	15	139	6	0	4	45	13	0	1	0		0	716
	B14	金石類	125		0	2	0	3	0	1	0	0	0	0	1		0	132
	B15	地理類	646		0	33	5	10	0	4	59	4	0	2	4		19	786
	B16	書誌類	26		0	1	0	0	0	0	0	0	0	0	0		0	26
	B17	記錄類	189		0	0	0	0	33	0	0	0	0	0	0		0	222
	小計		2,940		5	699	631	155	66	182	507	43	26	17	57		414	5,742
子部(C)	C1	總子類(子彙)	5,297		0	1	0	0	37	0	0	0	80	1	0		0	5,416
	C2	儒家類	104		0	305	140	132	0	60	176	21	0	4	15		24	981
	C3	道家類	65		0	6	10	0	0	1	4	0	4	0	4		0	94
	C4	釋迦類	670		0	25	0	1	1	0	12	0	0	9	0		45	763
	C5	兵家類	0		0	0	1	0	0	0	1	0	0	0	0		0	2
	C6	農家類	17		0	1	0	0	3	1	11	0	0	0	0		0	33
	C7	醫家類	18		0	80	0	4	1	0	8	2	0	0	46		0	159
	C8	天文·算學類	2		0	3	24	2	2	0	0	0	0	0	1		0	34
	C9	術數類	0		0	14	0	1	5	0	10	0	4	0	0		1	35
	C10	藝術類	118		0	3	0	8	0	2	42	0	0	3	0		10	186
	C11	譜錄類	7		0	0	0	0	0	1	0	0	0	1	0		0	9
	C12	正音類	2		0	19	0	0	0	0	6	1	0	0	2		2	32
	C13	譯學類	14		0	0	1	0	1	0	0	0	0	2	0		0	18
	C14	雜家類	367		0	33	23	3	8	3	3	0	0	0	7		1	448
	C15	類書類	3,550		0	44	284	13	0	0	6	3	0	0	19		73	3,992
	C16	檀君敎類	0		0	0	0	0	0	0	0	0	0	0	0		0	0
	C17	天道教類	1		0	2	0	0	0	0	0	0	0	0	0		0	3
	C18	基督教類	44		0	0	0	0	0	0	0	0	0	3	0		0	47
	C19	其他宗教類	8		0	0	0	0	0	0	0	0	0	0	0		0	8
	C20	西學類	0		0	0	0	0	0	0	0	0	0	0	0		0	0
	小計		10,284		0	536	483	164	58	68	279	27	88	23	94		156	12,260

類別	分類	古書線裝本													總計	
		寄贈文庫														
		購入	春秋	陪贈	我川	佛字	愚山	願里	葛川	吾林	炳淵	나원	금산	준용	春秋	
集部 (D)	D1 楚辭類	0	0	2	0	6	4	1	0	0	0	0	5	7	25	
	D2 總集類	193	0	256	43	51	43	32	26	4	14	0	33	73	768	
	D3 別集類	4,508	94	1,199	959	488	71	263	747	84	117	3	9	724	9,266	
	D4 尺牘類	3	0	30	0	3	7	1	15	0	0	0	8	6	73	
	D5 詩文譜類	51	0	21	0	3	0	0	3	0	15	0	0	1	94	
	D6 詞曲類	11	0	7	0	32	13	14	30	0	0	0	11	13	131	
	D7 小說類	410	0	61	0	11	9	1	3	0	0	2	4	48	549	
文書	小計	5,186	94	1,576	1,002	594	147	312	824	88	146	5	70	872	10,916	
	E 古文書類	122	0	0	0	97	10	0	9	0	0	0	0	0	227	
其他	稀貴·貴重本	0	0	42	0	0	0	0	1	0	0	0	0	0	43	
總合計		19,467	1,120	100	3,683	2,325	1,232	319	756	1,910	300	271	57	248	1,737	1,751
															35,276	

위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천각에 소장되어 있는 고서는 도서관 자체에서 구입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진주 인근 지역 문중에서 대대로 소장·관리되어 오다가 기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비록 타 대학 도서관이나 기관에 비해 많은 양은 아니지만, 경남지역 대학 도서관 중 경남지역의 고문헌을 소장한 유일한 고서실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 중에는 경남지역 유학자의 未刊 친필 필사본 등 서울 소재 대학이나 기관에서 구하기 힘든 경남지역 고문헌도 많이 소장하고 있다.

경상대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晉州는 安東·慶州와 함께 경상도를 삼등분한 각각의 중심지이며, 문화활동의 구심적 역할을 하였던 곳이다. 경주는 晦齋 李彥迪(1492~1553)의 근거지였고, 안동은 退溪 李滉(1501~1570)의 근거지였고, 진주는 南冥 曹植(1501~1572)의 근거지였다. 경주는 회재 이언적 이후 퇴계학파로 편입되었다. 그래서 경상도는 左道의 退溪學派와 右道의 南冥學派로 양분하게 되었던 곳이다.⁴⁾

그러므로 본 문천각에 소장된 고서도 자연히 경상우도 지역 유학자들의 문집이 중심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상우도 지역(오늘날의 경남지역)의 문화·역사·사상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4) 이상필, 「진주 지역 문집의 현황과 그 의미」(한국고문서학회 2004년도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고문서를 통해 본 19세기 한국사회』, 2004, 44쪽 참조.

III. 文泉閣의 특성화 방안

1. 지역학 연구 지원 센터화

전국 국립 대학 도서관 중에서 고서를 많이 소장한 대학 도서관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 도표와 같다.⁵⁾

<표 3> 전국 국립대학 도서관 고서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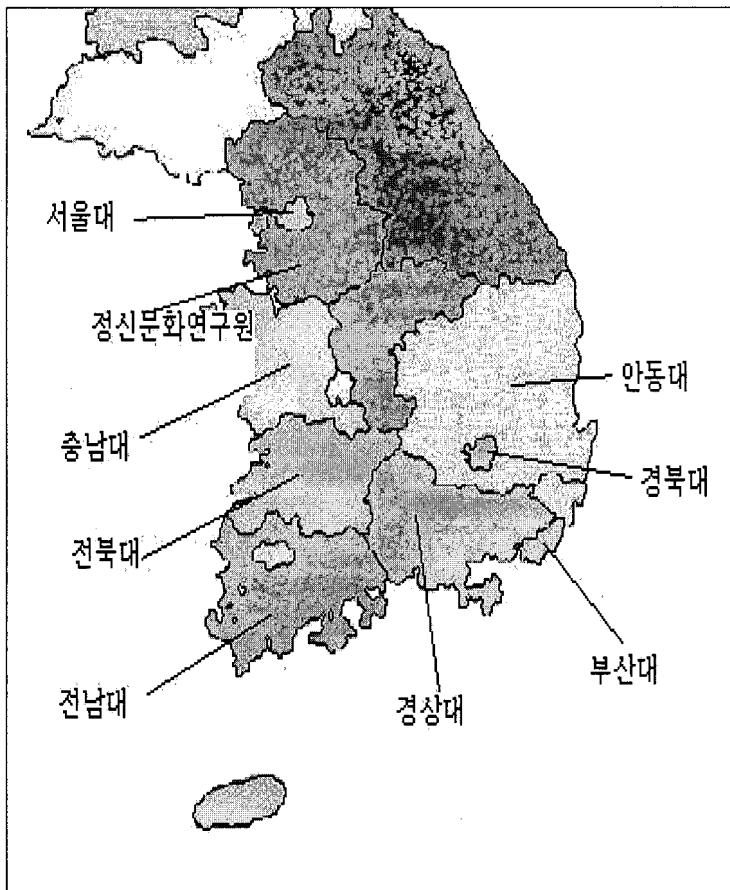
대 학	설 명	자료 분량	소 재 지
서울대학교 도서관	奎章閣	408,207권	서울지역
경북대학교 도서관	古書室	52,908권	대구지역
충남대학교 도서관	古書室	43,964권	충청지역
전남대학교 도서관	古典資料室	27,758권	전남지역
부산대학교 도서관	古典資料室	16,634권	부산지역
경상대학교 도서관	文泉閣	14,689권	경남지역
안동대학교 도서관	古書室	10,492권	경북지역
전북대학교 도서관	古漢籍室	8,332권	전북지역
합 계		582,974권	

고서를 소규모로 소장하고 있는 국공립 대학 도서관까지 총괄한다면, 전국 국공립 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서는 대략 60여 만 권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을 지도에 圖示하면 그림 2)와 같다.⁶⁾ 도표와 지도를 종합해 보면 한 道의 국립 종합 대학 규모의 대학 도서관에 고서를 소장한 고서실이 한 곳 정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 경상대학교 문천각은 경남지역을 대표하는 고서실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대학 도서관 고서실은 고서 양 늘리기 경쟁을 지양하고 고서실이 소재한 지역의 고문헌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지역학 연구 자료 관리 거점 지원 센터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5) 『國立大學圖書館報』, 제21집, 192쪽(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 2003) 및 각 대학 도서관 홈페이지 참조.

6) 이 외에도 경기지역에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있고, 경북 안동지역에는 한국국학진흥원이 있다. 이 기관은 설립 목적 자체가 상이하므로 본고에서는 論外로 한다. 그리고 규장각은 엄밀한 의미에서 지역 대학 도서관 고서실이라고 볼 수 없으나, 본고에서는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소속시켰다.



<그림 2> 고서를 소장한 전국 국립 대학 분포 현황

가. 수서 정책의 다양화

경상대학교 문천각은 고서와 고서 영인본 및 漢籍을 같이 소장하여 운영하고 있다. 고서 영인본 및 한적은 예산을 편성하여 구입하여 왔으나, 고서는 경남 인근지역 문중 및 독지가의 기증에 의해 경남지역 고문헌을 축적하여 왔다. 그러나 기증에 의존하여 경남지역 고문헌을 모두 구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 동안 경남지역 고문헌이 도난·분실·기증·매매·소장자의 이주 등으로 인해 타 지역으로 상당량이 이동·분산되어 타 지역 기관에 소장되어 있거나 타 지역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천각은 경남지역에 소재한 고서실로서, 경남지역 고문헌 종합 정보센터라는 개념 하에 경남지역 고문헌 자료를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축적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다양하고 유연한 수서 정책이 요구된다.

첫째, 고서는 高價인 경우가 많아 대학 도서관에서 고서 구입 예산을 편성하여 구매하지

못하고 그 대안으로 고서 영인본 구입에 치중해 왔다. 그러나 지방 유학자의 고문헌은 전국적인 수요가 없어 모두 영인·간행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영인이 되지 않은 경남지역 고문헌일 경우에는 고가의 고서라도 선별적으로 엄선하여 구입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기존에는 고서 원본이나 영인본만을 구입하는 것이 수서의 관례였다. 그러나 고서는 唯一本이나 稀貴本이 많은 관계로 고서 眞本을 구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타 지역으로 흘러 들어간 경남지역 고문헌과 기증이 불가능한 경남지역 개인 소장 자료 중에서 경남지역 고문헌은 복사본 또는 디지털화 된 자료라도 수서 예산을 편성하여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고서 영인본 구입에 있어서도 경남지역 유학자의 문집이거나 경남지역과 관련된 도서를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구입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지금까지 고서실은 책의 형태로 된 자료를 구비하는데 치중해 왔지만, 책의 형태가 아닌 古文書나 冊版·拓本資料·懸板·古書畫類·記文資料·柱聯·題詠詩文資料 등 경남지역 고문헌과 관련된 자료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족보나 근래에 간행되는 지방 유학자의 문집은 비매품 또는 한정판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자료들은 문중 또는 친분 관계에 있는 소수인 만이 나누어 갖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자료들도 입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나. 南冥學 및 지역학 자료실 운영

문천각은 경상대학교 남명학관 2층에 분관 형태로 독립되어 있는 자료실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명학관은 경남의 대표적인 유학자이자 경상우도학파의 중심 인물인 南冥 曹植(1501~1572)의 학문을 연구하고 실천 사상을 선양하기 위해 남명학연구 후원회에서 건립하여 경상대학교에 기증한 건물이다. 따라서 남명학관에는 남명 및 그 문인에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 방문하는 이용자가 많은 편이다. 그러나 남명학관뿐만 아니라 도서관 내에는 남명학 관련 자료 수집 담당 부서가 없어 체계적인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남명학 관련 자료가 도서관 각각의 자료실에 분산 배치되어 있다. 이용자가 관련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열람하는데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문천각에서 남명학 관련 자료를 일괄 수집·배치하여 남명학 분야 특성화 자료실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문천각 내에 남명학 관련 자료 코너를 설치하여 남명학 관련 단행본·연속간행물·학술지·논문·신문기사·사진 자료·AV 자료·팜플렛·圖錄·拓本 資料·기념품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관하여, 한 곳에서 이용자의 요구 자료를 원스텝으로 제공한다면 지역학 연구 지원 센터로서의 위상을 提高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다양한 장서 개발과 주제자료실 구현

고서실을 고서 眞本만 소장하는 곳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고서 진본만 소장하는 곳으로 존재하게 되면 이용자가 고서 원문을 확인하고, 다시 족보 등 연관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 다른 자료실을 경유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경상대학교처럼 고서실이 중앙도서관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분관 형태로 독립되어 있는 경우 일수록 고문헌과 연관된 자료를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열람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관된 자료를 원스톱으로 열람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주제자료실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연관된 자료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가. 鄉土 資料

고서실을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자료센터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한 자료도 같이 수집·비치해 두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지역과 관련된 金石文資料·郡誌·邑誌·記文 資料·지명 사전·인명 사전·지도 등을 같이 비치해 두어 지역학 연구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체로 지역의 문화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비매품의 형태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역 문화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광범위한 자료를 입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나. 古文獻 影印本 資料

고서실에 소장되어 있는 고서는 자료의 특성상 열람의 제한을 많이 받는 자료들이다.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곧 고서 영인본이다. 현재 고서 영인본으로 대표적인 것은 경인문화사 간행 『韓國歷代文集叢書』, 민족문화추진회 간행 『韓國歷代文集叢刊』, 성균관대학교 『李朝名賢集』, 안동대학교 『退溪學研究叢書』, 국사편찬위원회 『朝鮮王朝實錄』·『各司瞻錄』·『承政院日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古文書集成』 등이 있고, 중국 자료로는 『文淵閣四庫全書』·『續修四庫全書』 등이 있다. 裝幀이나 紙質 등 형태상 고서가 아닌 관계로 고서와 별개로 취급하여 분류·비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형태가 고서와 다를 뿐 내용은 고서와 동일하다. 뿐만 아니라 고서 이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발행되는 형태의 도서이므로 고서실과 연계하여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영인본은 간행 부수가 많지 않은 관계로 출판 즉시 구입하지 않으면 구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고서실 운영자는 고서 영인본 발행 정보를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파악하여 수서 계획에 즉각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다. 族譜 資料

고서로 된 족보는 고서실에 비치하고, 근래에 간행된 양장 영인본 족보, 한글 번역본 족보 등은 일반도서실의 역사부분으로 분류해 자료의 소장 위치가 이원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근래에 간행되는 양장 영인본 족보 및 한글 번역본 족보 등도 고서 영인본 및 고서와 같이 취급해 고서실과 연계된 공간에 분류·비치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족보는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되는 도서가 아니므로 문중이나 출판사를 통해 기증 또는 구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電子 情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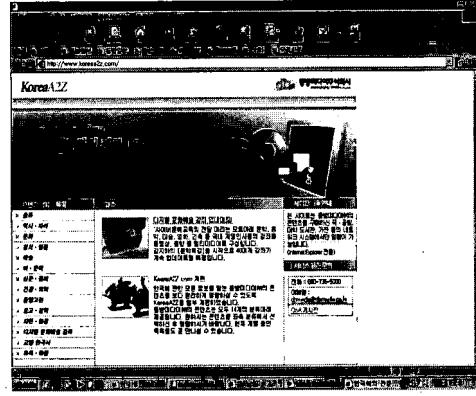
디지털미디어는 시공을 초월하여 자료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검색·열람하기 위해 개발된 매체이다. 따라서 고서실에서는 고문헌 관련 전자정보도 같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해 두어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朝鮮王朝實錄』(번역본판, 원문 검색판), 『三國史記』, 『三國遺事』, 『司馬榜目』, 『尙友千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法典類 등이 있고, 중국 자료로는 『四庫全書』(이미지판, 원문 검색판), 『四部叢刊』, 『二十五史』 등이 있다. 어떤 전자 정보는 도서관 서버에 설치되어 넷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프로그램의 형태상 또는 저작권 관계로 넷 서비스가 불가능한 전자 매체도 있다. 이러한 전자 매체도 고서실에 구입 비치 또는 설치해 두고 이용자가 고서실을 방문했을 때 고서 열람의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 관계로 넷서비스가 불가능할 시에는 전자정보 제공 전용 PC를 설치하여 전자정보만 제공하는 것도 고서실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더욱 다양하고 신속한 참고봉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 이러한 전자정보를 개발하는 곳은 대표적으로 서울시스템(www.ssc.co.kr), 누리미디어(<http://www.nurimedia.co.kr>), 동방미디어(<http://www.koreaa2z.com>, 현재 동방 SnC) 등이 있다. 위 사이트는 대학 도서관과 협정을 체결하면 그 대학 구성원이 自社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현재까지 개발된 고문헌 관련 전자정보 목록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 고문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곳으로는 민족문화추진회,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 규장각 등이 있다.



<그림 3> 누리미디어 홈페이지



<그림 4> 동방미디어 홈페이지

마. 古文書・拓本・冊版 資料

고문서 및 책판·탁본자료·古書畫 자료도 고서와 연계하여 소장·관리하여야 한다. 대학 도서관의 노력으로 고서 목록과 고서 해설집이 지속적으로 발행되고, 전국에 산재한 고서를 통합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고서의 현황과 소장처 등이 많이 파악되었다. 최근에는 역사 연구의 기초자료인 고문서 수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대학 도서관 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국사편찬위원회·한국국학진흥원 등의 기관에서 전국적으로 고문서 수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학 도서관 고서실도 지역에 산재한 고문서에 관심을 가지고 고서와 같은 차원에서 고문서를 수집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에 산재한 비문이나 금석문 등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자료도 탁본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 문종별로 관리되고 있는 책판도 고서와 같은 차원에서 기증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책판은 고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도 있고, 고서 출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판본학 연구 등에 소중한 연구자료가 된다.

IV. 文泉閣의 장기 추진 업무

1. 경남지역 고문헌 目錄·解題集 발간

지역학 연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학 관련 고문헌의 소장 현황 및 소장 위치를 이용자에게 신속·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현황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곧 古書目錄이고, 그 고서에 대한 상세 서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古書解題集이다.

고서를 소장한 대학에서 고서 목록을 발행한 경우는 많이 있어도, 고서 해제집을 발행한 대학은 아직 많지 않은 실정이다.⁷⁾ 그런데 기존 목록집이나 해제집을 살펴보면 모두 자관 소장자료 중심으로 발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이 당연한 작업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再考의 여지도 있다. 經書類나 學習書 뿐만 아니라 유명 학자의 문집 등은 여러 대학 도서관 고서실 소장 자료와 중복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각 대학마다 장서 목록과 해제집을 소장 도서 위주로 발행하게 된다면, 타 대학 고서 목록집이나 고서 해제집과 상당 부분 중복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전국적으로 많은 대학 도서관에서 해제 작업과 출판에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고서 목록집은 소장자료 위주로 발행하고, 고서 해제집은 자관 소장자료 위주가 아닌 지역 문집 중심으로 발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본다. 가령 지역문집을 본관에 소장하지 못했더라도 해제는 작성하고, 그 소장처를 밝히는 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 중 지역별 문집 해제집을 발간한 경우는 『嶺南文集解題』가 그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⁸⁾

앞으로 문천각에서는 경남지역 유학자의 문집 1천 여 종을 선별하여 가칭 『慶尙右道學派文集解題』를 발간할 계획이다. 『慶尙右道學派文集解題』를 완성하여 차후 『경상우도학파 고문현 학술 DB구축 사업』과 연계시키고, 또한 가칭 『慶尙右道學派文集叢書』 영인본 발간 자료의 해제와도 연계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경상대학교 문천각 만의 단편적인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될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전국 대학 도서관 고서실 실무자 및 학계 관계자가 모여 해제 작성의 표준안을 만들고, 지역별로 분담하여 각 지역별 해제집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전국 각 지역별로 발간된 해제집을 한 곳에 집성하게 되면 곧 우리 나라 전체 고문현의 현황과 상세 서지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7) 국공립 대학 도서관에서 발간된 고서 목록집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서울대학교 도서관, 『一般古書目錄』, 1973.

해군사관학교 도서관, 『漢籍目錄』, 1977.

서울대학교 도서관,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 1~8, 1978~1987.

전남대학교 도서관, 『古書目錄』 I, 1990.

충남대학교 도서관, 『古書目錄』, 1993.

서울대학교 도서관,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 1994.

안동대학교 도서관, 『古書目錄』 I, II, 1994, 2003

경상대학교 도서관, 『漢籍目錄』, 1996.

고서 해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전북대학교 도서관, 『古漢籍解題』 I, 1990.

안동대학교, 『고서해제』 1~3, 2000~2002.

8) 1988년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에서 발간한 이 해제집에는 영남지역 유학자의 문집 약 일천여종의 해제가 수록되어 있다.

2. 경남지역 고문헌 影印本 발간

성균관대학교에서 『李朝名賢集』(1959년 初刊)이 영인 발간된 것을 시작으로 한국 유학자의 문집을 영인 발간하는 사업이 그 동안 많이 이루어져 국학 연구의 저변 확대와 연구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큰 기여를 해 왔다. 안동대 퇴계학연구소 『退溪學資料叢書』(1998년, 50권), 계명한문학연구회 『退溪學文獻全集』(1999년, 23권), 아세아문화사 『栖碧外史海外蒐佚本』(1984년),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李朝中期思想叢書』(1982년), 아세아문화사 『韓國近代思想叢書』(1978년), 아세아문화사 『韓國名家文集選』(1980년), 성균관대 『李朝名賢集』(1959년), 민족문화추진회 『韓國歷代文集叢刊』(1993년부터 현재 300권 발행), 경인문화사 『韓國歷代文集叢書』(1993년부터 현재 3,000권 발행) 등이 고서 영인본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와 같은 고서 영인본은 지역성이 없이 지명도와 연구 가치성 등을 기준으로 영인·발간이 이루어졌다. 현존 가장 방대한 3,450명분의 한국 역대 문집을 영인한 『韓國歷代文集叢書』(경인문화사 발간)의 경우도 지역과 시대 구분 없이 영인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명도와 연구 가치성이 떨어지는 지방 유학자의 문집은 상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인이 안 돼, 여전히 널리 공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판 소장 자료 중 타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거나 학술적으로 중요한 지역학 관련 고문헌을 발굴·영인·보급하여 지역학 연구 활성화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지역별 고서를 영인 발간한 것으로 안동대 퇴계학연구소의 『退溪學資料叢書』(1998년, 50권)가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여기에는 경북 안동지역 퇴계 문인의 문집이 시대별로 영인 되어 있다.

경상대 문천각에서도 장기적으로 문천각 소장 경남 지역 유학자의 문집을 엄선하여 가칭 『慶尙右道學派 文集叢書』를 발간하고 해제도 첨부할 계획이다.

3. 경남지역 고문헌 디지털화

고서는 자료의 특성상 열람에 큰 제약을 받는다. 이 때문에 고서실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기존에는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서 영인본을 제작하거나 마이크로필름의 형태로 찍어 열람에 활용하였다. 영인본을 제작하면 도서관에서 구입하여 열람하게 하면 되지만, 영인본은 상업성이 있는 고서에 한해서 출판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마이크로필름판도 마이크로필름 판독기를 통해야만 열람하거나 인쇄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이크로필름으로 제작하는 것도 절대적인 해결 방법이 되지 못하였다. 필름 자체에 수명이 있어 수년마다 다시 복사본을 제작하여야 하고, 필름 판독기가 없으면 열람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더 큰 결점은 곧 온라인 서비스가 불가능하고 복본 제작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디지털화이다. 디지털화를 통

해 넷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물리적·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근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고문헌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화의 방법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

지금까지 소장기관에서 자관 소장자료를 중심으로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고서 해제 작업과 동일하게 타관 소장자료와 중복이 발생하여 시간적·경제적으로 심각한 낭비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정부는 지난 5년간 정보통신부 주도 하에 67개 과제를 선정하여 1천 170억 원을 투입하는 지식정보화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이 사업에 참여한 기관은 중앙기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 소재 기관은 한국국학진흥원이나 독립기념관이 있을 뿐 대학 도서관이 참여하는 경우는 전무한 실정이다.⁹⁾ 지방 소재 대학보다 양이나 질적으로 많고 우수한 고문헌을 소장한 중앙기관에서 이러한 사업을 주도 또는 독점해 오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지방 소재 대학은 자료를 소장해 두고 제공만 하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앞으로 대학 도서관 고서실에 소장되어 있는 고문헌을 디지털화하는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 대학 고서실에서는 자관이 소속된 지역의 지역적 문화적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자료 중심으로 디지털자료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경남지역 소재 고서실은 경상우도지역 고문헌 DB구축, 경북지역 소재 고서실은 경상좌도권 고문헌 DB구축, 전라권역은 호남지역 고문헌 DB구축, 경기지역은 기호지방 고문헌 DB구축 등으로 지역과 연계한 특성화된 고문헌 DB가 구축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타 지역 기관과의 무분별과 중복과 경쟁을 피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역 고문헌 중심으로 개발된 디지털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면 우리나라 전체 고문헌 DB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관 소속 지역 고문헌이 타관에 소속되어 있으면 상호 협정을 통하여 경남지역 고문헌을 복사 또는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증 불가능한 개인소장 고서라도 소장자의 협조를 얻어 복사 또는 디지털자료를 제작하여 소장하고 열람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고문헌 디지털화를 중앙의 몇몇 기관에서 독점하고 있는 권한을 지방 소재 대학 도서관이 대폭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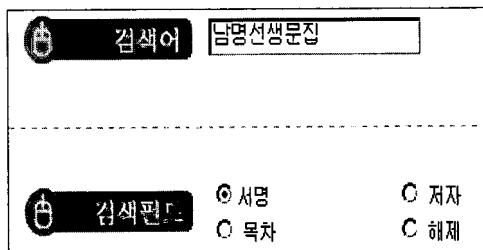
가. 경남지역 고문헌 디지털화

경상대학교 문천각에서는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2002년, 2003년 연속으로 정부통신부 지식정보전산화 사업에 <남명학 관련 고문헌 학술 DB구축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대학 도서관으로서 이러한 국책 전산화 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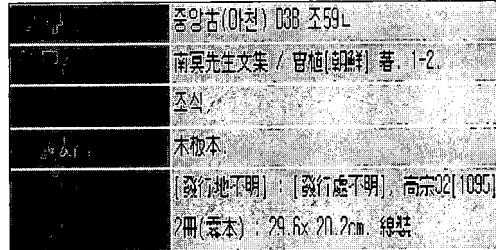
9) <http://itprogram.nca.or.kr> 참조.

해당된다.

대학 도서관 고서실도 중앙 소재 기관과 차별화 된 지역학 관련 정보 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향후 아래 그림과 같이 지역의 고문헌 자료를 검색 기능·간략 서지 정보·목차 정보·상세 서지 정보·원문 정보·텍스트 정보·번역문 정보·학술지 논문 정보 등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단계까지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 검색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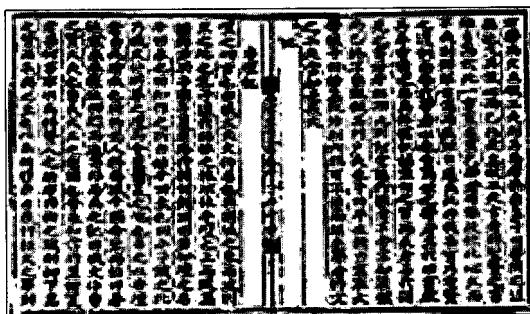
△ 간략 서지 정보

○ 목차내용	
目次	
表紙 = 0	
目錄 = 1	
卷之一 = 13	
賦 = 13	
詩 = 17	

△ 목차 정보

南冥 曺植(1501~1572)의 詩文集으로 1764년(英祖 40)에 출판되었다. 本集은 詩, 賦, 銘, 書, 跋, 疏, 論, 雜著, 學記고, 別集에는 世系, 年譜, 言行總錄에 이어 대부분이 했던 諸儒들에 대한 글 및 逸事들을 모은 것이다. 曹植은 文貞이다. 昌寧人으로 正郎彥亨의 子로 三嘉縣에서 出生하였다. 詩文를 배웠는데 應口輒成誦했다. 1518년 18세에 父親試와 文科에 及第했으나, 山中에서 聖賢之學에 專心하거나 佛學에의 뜻을 버리고 性理學에만 專意했으며 여러 가지 않았다. 61세에는 智異山에 들어가 德川洞에 山房을

△ 상세 서지 정보(해제)



△ 원문 이미지 정보

民巖²⁾賦
六月之交 風雨如馬 不可上也
以是行 亦以是覆 民猶水也 古有
固知可見者水也 險在外者難狎

△ Full Text 정보

민암부(民巖賦)¹⁵⁾ 유월 어름 참마철에, 연예퇴(演易退 ¹⁶⁾)가 맡쳐 럽 우뚝하여,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다.	[검색조건] 전체/민암부 총 1건 검색 <input checked="" type="checkbox"/> 최대 출력건수 : 300건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 padding: 2px;">□ 번호</th><th style="text-align: left; padding: 2px;">논문제목 (영문제목) / 저자 (</th></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input type="checkbox"/> 1</td><td style="text-align: left; padding: 2px;">남명의 「민암부 (民巖賦)」에 대하여 (O 상필 (漢文學論集 Vol.8 No.1, [1990]))</td></tr> </tbody> </table>	□ 번호	논문제목 (영문제목) / 저자 (<input type="checkbox"/> 1	남명의 「민암부 (民巖賦)」에 대하여 (O 상필 (漢文學論集 Vol.8 No.1, [1990]))
□ 번호	논문제목 (영문제목) / 저자 (
<input type="checkbox"/> 1	남명의 「민암부 (民巖賦)」에 대하여 (O 상필 (漢文學論集 Vol.8 No.1, [1990]))				

△ 번역문 정보

△ 학술지 · 논문 정보

<그림 5> 고문헌 학술 DB의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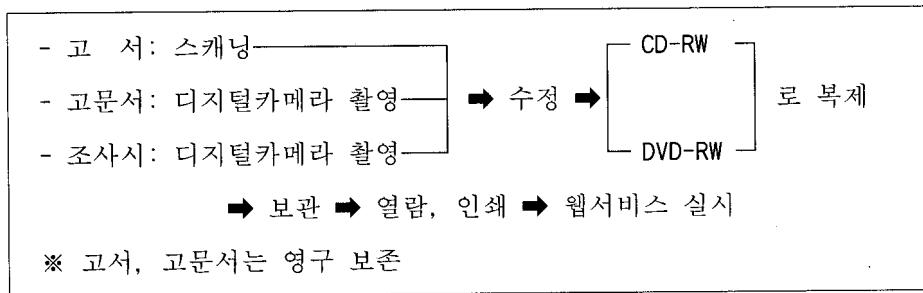
나. 경남지역 고문헌 디지털 제작실 설치

고서실의 고서가 국책사업 또는 대학교의 전산화 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무작정 디지털화 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 고서는 복사 및 열람시 원본자료가 훼손되거나 분실될 위험이 크고, 또한 火災나 濕害에 취약해 복사본 제작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우선 이용빈도가 높거나, 유일본이거나, 자료의 훼손 상태가 심하여 특별히 보존해야 하는 자료부터 디지털카메라를 통한 촬영이나 스캐너를 통한 스캔을 통해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CD-ROM · DVD 등에 저장하여 소장 · 관리 · 열람할 수 있는 고문헌 디지털 제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서실에는 디지털화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컴퓨터나 AV시스템 등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고서 및 고문서는 규격이 일정하지 않아 디지털화 및 복사에 자동화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규격이 작은 고서는 스캐너로 스캔을 하고, 규격이 큰 고문헌은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CD-ROM · DVD 등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추후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 PC를 통해 열람함으로써 고서 및 고문서의 원본 훼손 방지 및 분실시 대비할 수 있고, 이용자에게는 열람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향후 고서 및 고문서의 웹서비스 실현이 가능해진다.

또한 디지털기기는 휴대하여 고서 및 고문서 현지 조사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그리고 기증 불가능한 개인 소장 고서 및 고문서의 복사본 제작에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표 4> 고문현 디지털 제작 개념도



4. 경남지역 고문현 문화재 보존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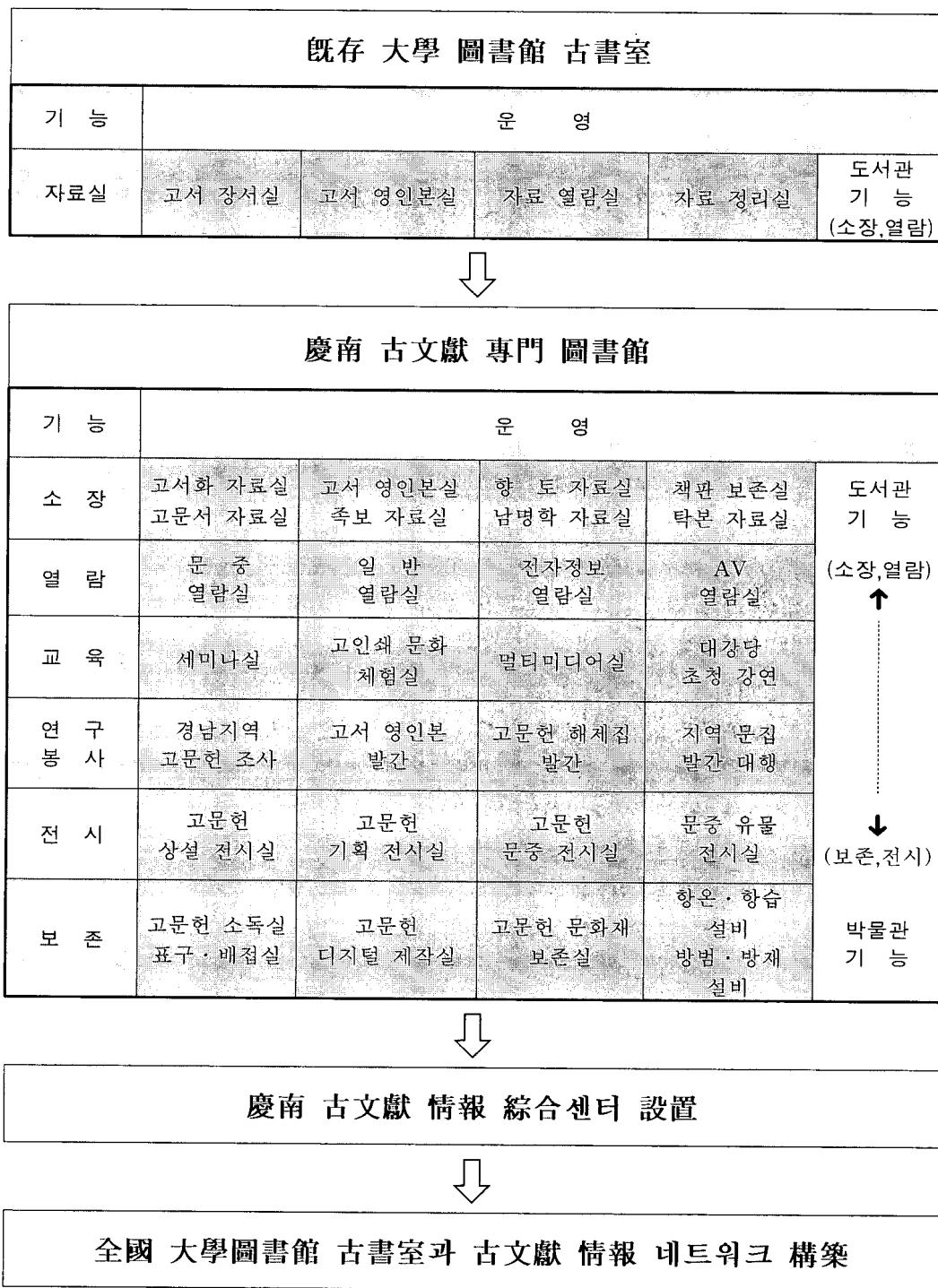
경남지역에는 개인 또는 문중 및 소형 사찰 등에서 관리되고 있는 고문현 문화재가 많이 산재해 있다. 이들 자료들은 도난 및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를 기피하고 있어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지지 못하고 있고, 특별한 보존 시설이 없어 훼손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경남 전역에 문화재로 지정된 古書·古文書(교지류, 호적단자, 통문 등)·冊版(木活字, 菱花版 포함)·古書畫·佛畫 등을 대학 도서관에서 일괄 기증 또는 위탁받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된다.¹⁰⁾

발굴 문화재나 유물은 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고문현과 같은 기록 문화재는 지역 국공립대학 도서관에서 종합적으로 위탁 관리하고, 개인 및 문중에 지원하는 문화재 관리 예산을 대학 도서관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 고문현 문화재 관리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문화재 관리예산을 대학 도서관에 지원하여 고문현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대학에서는 고문현을 연구와 교육에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5. 경남 고문현 전문 도서관 건립

위에서 언급한 것은 모두 고문현의 소프트웨어적인 운영 방안이다. 이제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특성화된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서는 아래 그림 6)과 같이 전시·교육 등 도서관과 박물관 기능을 복합적으로 결합한 고문현 전문 도서관 건립이 시급히 요구된다.

10) 경상대학교에서는 2000년도부터 경남 산청 丹城鄉校에 보관 관리해오던 『丹城縣 戶籍大帳』(경남 도유형문화재 제 139호)를 위탁 관리해 오고 있는데, 좋은 선례라고 볼 수 있다.



<그림 6> 경남 고문헌 전문 도서관 개념도

V. 지역민을 위한 봉사 활동

1. 전통 문화 체험 교실 운영

고서실은 고서 열람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전문 연구자도 있으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에 의해 방문하는 학생이나 일반인도 많다. 이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호기심 충족과 고문헌 대중화를 위해 전통문화체험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천각에서는 고인쇄 체험 실습용 模刻本 木版·능화판·古活字 등을 비치해 두고 문천각 방문자가 직접 고인쇄 전통문화를 실습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본 문천각에서는 경남을 상징하는 목판 모각본을 제작하여 비치할 계획이다. 목판을 골동품 업자를 통해 구입하게 되면 목판의 도난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구입은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합천 해인사에 소장되어 있는 팔만대장경 경판¹¹⁾과 경남 산청 山天齋에 소장되어 있는 『南冥先生文集』 목판을 선정하여 모각본을 제작·비치할 계획이다.¹²⁾ 그 외 韓紙 제작 현장 견학 프로그램, 고서 裝幀 실습, 古書의 이해, 古文書의 이해 등을 프로그래밍 해 방학 중에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홍보 효과를倍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민에게 볼거리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문천각에서는 2003년 8월 南冥 曹植 선생의 사상을 선양하기 위한 축제 중의 하나인 선비문화축제 때 남명선생문집 목판 인쇄 시연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10월에는 진주지역 고등학교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고인쇄 문화 강의와 실습을 지도한 바 있다. 앞으로도 지역민의 전통문화 이해와 애호 정신 함양을 위해 이러한 전통문화 체험행사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1) 현재 팔만대장경판은 합천 해인사에서 모각본을 제작해 두고 관광기념품으로 판매하고 있으므로 구입해서 비치하면 된다. 그리고 근래 청동으로 다시 재현한다고 하니, 이 또한 구입하여 진열하면 좋은 홍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2) 단순 模刻 보다 남명선생문집책판 중 神明舍圖 부분만 확대해서 모각하는 방법을 계획중이다. 인쇄해서 그 인쇄물을 액자에 넣어 기념품으로 증정 또는 실비 판매도 계획중이다.



<그림 7> 남명집 목판 인쇄 시연



<그림 8> 남명집 목판 인쇄 실습

둘째, 고인쇄문화나 전통문화·향토사 관련 AV자료를 다양하게 개발·수집하여 두고 문 천각을 방문하는 일반인을 위해 감상할 수 있는 AV 감상실도 운영할 계획이다. AV자료 목록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 남명학 및 지역학 관련 자료 AV 자료

- 「동방의 빛 남명 조식」, 진주 MBC
- 「남명이 지리산을 열 두 번 오른 까닭은」, KBS 역사스페셜
- 「역사의 라이벌-南冥과 退溪」, KBS
- 「南冥 曹植」, 남명선생 탄신 500주년 기념 사업회
- 「남명선생 유적지 안내」, EDIT
- 「남명 조식」, EBS

○ 전통 문화 관련 AV 자료

- 「古印刷」, EBS
- 「금속활자 그 위대한 발명」 1~3, 청주고인쇄박물관
- 「古書의 비밀」, KBS 역사스페셜
- 「진주대첩-3천이 3만을 어떻게 이겼나」, KBS 역사스페셜
- 「5천만자의 하이테크-팔만대장경」, KBS 역사스페셜
- 「최초 공개-임진왜란 최후 전투도」, KBS 역사스페셜
- 「조선왕조실록이 산으로 간 이유는」, KBS 역사스페셜
- 「사라진 보물창고, 외규장각」, KBS 역사스페셜

셋째, 지역민에게 지역 고문헌에 대한 관심과 애호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지역과 관련된 주제별 고문헌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실제로 진주지역 모 단체에서

2003. 12.15~20일 까지 진주를 소재로 한 책을 한자리에 모아 진주시청 로비에서 ‘진주, 진주사람, 진주책’을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한 적이 있다. 이번 전시회는 근대에 진주사람이 간행된 책이나 진주에 관련된 책만을 전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문천각이 공동 참여하여 고서를 추가함으로써 진주지역 책의 역사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지역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2. 고문현 소장자 및 기증자 선양

고문현은 대체적으로 조상 대대로 보관 관리되어 온 문중유물이다. 고문현의 내용 또한 문중 및 지역의 역사와 문중 선현이 남긴 친필 글씨 등 조상의 손때가 묻은 귀중한 家寶인 것이다. 그러므로 고문현 소장자는 문중 소장 고문현을 타 지역으로 옮겨가거나 기증하는 것을 꺼린다. 지역 대학에서 이러한 문중 소장 고문현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문중 소장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그 욕구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고문현 소장자는 爲先意識이 강하기 때문에 문중 선양을 요구한다.

둘째, 문중에서 관리하는 것 보다 더 완벽한 보존 시설을 요구한다.

셋째, 기증을 하는 경우 타 지역보다 인근 기관에 기증하고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기를 원한다.

넷째, 기증보다 위탁관리를 더 선호한다.

따라서 개인이나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문현을 지속적으로 기증 또는 위탁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소장자가 선결과제로 제시하는 문중 선양사업과 완벽한 고문현 보존 시설을 구비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 소장가들의 고문현 공개와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기존 박물관이 지정문화재만을 전시하는 것과 차별화를 시도하여 도서관에도 박물관의 전시 기능을 겸비한 전시관을 설치하여 개인이나 문중이 소장하고 있는 고문현도 전시하여 선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위선의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문중의 연구 사업, 발간 사업 등을 보조 또는 대행하는 것이다. 실례로 경상대학교 문천각의 경우 1996년 본교에 고서 7백 여 권을 기증한 바 있는 문중에서 문중 선현의 문집 발간을 계획하고 있어, 筆寫 된 원고 전체를 가져와 대학에서 한자 입력, 교정, 서문, 발문, 편집, 반포 등을 일괄하여 작업 중에 있다.

셋째, 기증 고문현에 대해 상세한 서지를 책자 형태로 작성하여 기증자에게 제공하여, 기증의 증거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중요한 자료는 影印本을 제작하여 널리 반

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증자는 언제든지 본인이 기증한 고서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도서관을 방문하여 본인이 기증한 고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증한 고문헌도 열람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넷째, 기증 고문헌 중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을 선별하여 문화재로 지정하고, 널리 선양하는 것이다. 경상대학교 문천각에서는 지금까지 기증된 고문헌 중 고서 9종 9책, 고문서 2종 259점을 선별하여 경상남도에 문화재 지정 심사를 의뢰해 두고 있다. 이로써 경남 지역 고문헌을 더욱 많이 유치할 수 있는 홍보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VII. 결 론

지금까지 대학 도서관 운영방안에 대해 개략적인 서술을 해 보았다. 위와 같이 대학도서관 고서실이 각 지역별 지역학 연구 거점 지원센터로서의 다양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학 및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집중되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고서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학 및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고서실은 이용자가 적다는 이유로 담당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연관된 자료실의 부속 자료실로 운영되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고서실 운영자는 고서를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지식이 요구된다. 따라서 고서실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밝고, 古文書學 · 漢文學 · 書誌學 · 草書 · 古書畫 · 電算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두루 갖춘 주제 사서를 많이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장기적으로는 지역 고문헌을 체계적으로 연구 · 보존 · 관리할 수 있는 박물관 기능을 겸비한 고문헌 전문 도서관 건립사업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경남 지역에서 매장문화재는 경상대박물관, 경남대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거창박물관, 함안박물관 등에서 분산 관리되어지고 있다. 불교문화재는 경남지역의 경우 해인사, 옥천사, 통도사, 쌍계사 등에 聖寶博物館이 건립되어 관리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임진왜란 관련 기록이나 유물은 국립 진주박물관에서 관리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경남지역에서 경남지역 고문헌을 소장 · 관리하고 있는 곳은 경상대학교 문천각이 유일하다. 그러나 문천각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장서로 인해 공간이 협소하고 보존시설이 미비하여 고문헌 관리와 운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문헌이 도서관보다 보존 · 관리 시설이 우수한 박물관으로 기증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박물관에서는 기증 고문헌이 박물관의 건립 성격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전시되지 않고, 대부분 지하

수장고에 수장돼 학술적으로 연구에 활용되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경상대학교 문천각을 도서관과 박물관 기능을 복합적으로 겸비한 고문헌 전문 도서관 체제로 개편하여 경남 지역 고문을 전문적으로 보존·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고문헌은 단순한 도서의 개념을 넘어 역사적으로 우리의 소중한 기록 문화유산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 나라에는 60여 만 권에 이르는 고문헌이 국공립 대학 도서관 고서실에서 소장·관리되고 있다. 그리고 고서실도 지역 대학 도서관 자료실의 일부로서 운영되어지고 있다.

고서는 보존·관리에 많은 비용이 요구지만, 고문헌 관리 예산을 지금까지 대학과 도서관에서 전담하여 왔다. 이 때문에 대학 도서관 고서실이 진정한 지역 고문헌 관리 센터로서의 다양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 도서관 고서실을 국가 차원에서 별도로 지원하여 지역학 연구 자료 센터로 집중 육성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지역학 관련 자료를 쉽게 축적·연구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지방 대학이 각 지역에서 지역학 자료를 방대하게 축적하고 지역학 연구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때, 지방 대학이 지역과 대학에서 사랑 받고 국가 문화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